

‘버닝썬 게이트’ 경찰 윗선까지 번질까

본청 과장 총경 대기발령

“승리와도 몇차례 식사했다”

민갑룡 청장 신입 두터워

광주출신 박병 멤버 승리의 ‘버닝썬(서울 강남 클럽) 게이트’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승리(본명 이승현·29)와 가수 정준영(30) 등 유명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른바 뒤를 바꾸는 경찰(경찰총장)로 거론된 A총경도 사실상 호남출신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번 버닝썬 사건과 경찰유착 의혹의 연결고리 의심을 받고 구속된 전직 경찰 강모씨도 광주 출신인데다, 버닝썬 민원해결을 위해 경찰관에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조직폭력배마저도 호남 모 폭력조직 소속으로 전해지고 있

는 상황이다.

1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본청 과장 A총경을 경무담당관실로 대기발령하고 후임 과장을 임명했다. A총경은 본청에서 핵심 보직을 맡아왔다.

앞서 승리와 정준영 등이 포함된 카톡방 대화 내용을 확보한 경찰은 이들의 대화에서 경찰고위 인사의 비호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야기가 오간 것을 확인했다.

2016년 7월 이들의 카톡방에서 한 참여자가 ‘열 업소가 우리 업소 내부 사진을 찍었는데 경찰총장이 걱정 말라더라’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경찰총장’은 경찰 조직에 없는 직위명이며, 해당 인물은 A총경으로 확인됐다.

A총경은 2015년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총경으로 승진한 그는 이듬해 청와대에 파견돼 민정수석실에서도 근무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5일 A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에 “조직에 누를 끼쳤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준영은 모른다. 나중에 밝혀질 거다”라고 했다.

A총경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는 문제의 카톡방 참여자 중 하나였던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와 친분이 있었고, 함께 식사와 골프 등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총경은 유씨를 통해 승리와도 몇 차례 함께 식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총경의 연루 사실이 알려지면서 ‘버닝썬 게이트’가 어느 선까지 번질 지를 놓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A총경은 경찰 내 프로필에 출신지를 서울로 밝히고 있지만, 광주에서 중학교 등을 다녔다. A총경은 특히 영암이 고향인 민갑룡(경찰대 4기) 경찰청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그동안 핵심 보직을 맡아왔다는 게 경찰 내부의 말이다.

이와 함께 지난 15일 ‘버닝썬’과 경찰

사이 유착 고리로 지목된 광주 출신으로 알려진 전직 경찰관 강모씨가 구속됨에 따라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동향 경찰관들도 수사선상에 오르는 분위기다. 경찰을 그만둔 뒤 모 화장품 회사 임원으로 있는 강씨는 클럽과 경찰 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화장품 회사는 지난해 7월말 버닝썬에서 홍보행사를 열었는데, 행사를 앞두고 버닝썬에 미성년자 손님이 출입해 고액의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자 강씨가 나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것이 의혹의 내용이다.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는 최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A총경이 광주의 한 중학교를 졸업한 것은 맞다”면서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개인 정보 및 수사중인 관계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0
해질 18:42
달뜨기 15:25
달지기 04:44

봄바람 살랑살랑

구름 많은 가운데 낮기는 높아 일교차 크겠다.

광주	구름많음	2/16	보성	구름많음	-3/13
목포	구름많음	2/15	순천	구름많음	1/15
여수	구름많음	6/14	영광	구름많음	-2/15
나주	구름많음	-2/16	진도	구름많음	3/11
완도	구름많음	3/15	전주	구름많음	0/16
구례	구름많음	-1/16	군산	구름많음	-1/13
강진	구름많음	0/15	남원	구름많음	-2/15
해남	구름많음	-2/14	흑산도	구름많음	5/12
장성	구름많음	-2/15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동~남	0.5~1.0	동~남동	0.5~1.0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5	동~남동	0.5~1.5
남해 앞바다(동)	동~남동	1.0~1.5	북동~동	0.5~1.0
남해 앞바다(서)	동~남동	0.5~1.0	북동~동	1.0~1.5

◇ 물때

목표	간조	만조
	04:55 17:50	12:11 ---:---
여수	00:42 13:33	07:22 19:38

◇ 주간 날씨

19(화)	20(수)	21(목)	22(금)	23(토)	24(일)	25(월)
5/20	6/18	9/15	2/11	1/12	1/14	2/15

◇ 생활지수

	높음
	매우 높음
	감기
	보통

광주국세청 사립유치원 19곳 세무조사 방침

광주 사립유치원 탈세 의혹(광주일보 2019년 3월 14일자 6면)과 관련해 광주 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의지를 드러냈다.

17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은 조만간 광주교육청을 방문해 사립유치원 관련 감사자료를 넘겨받기로 했다. 광주국세청은 유치원 감사 자료 검토 후 본청과 조율을 거쳐 세무조사 착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사립유치원 30곳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사기 등 혐의로 유치원

10곳을 형사고발하고, 탈세 의혹이 짙은 19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세무조사 의뢰 대상인 19개 사립유치원은 감사과정에서 원장이나 설립자 또는 그의 가족 등에게 지급된 유치원 봉급, 설립자 또는 원장에게 불법적으로 지급된 유치원 시설 사용료에 따른 세금 누락 사실이 파악됐다. 또 유치원과 업자간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은 사례도 무더기로 확인돼 탈세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

낙뢰로 멈춘 한빛원전 5호기 가동 재개

지난 15일 영광 한빛원전 5호기(100만kW급)가 갑자기 발전을 멈춘 원인이 낙뢰로 나타났다. 5호기는 안전점검을 마친 후 이를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다. 17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시 25분경 한빛 5호기 주 변압기에서 이상 신호가 발생해 터빈 발전기가 자동 정지했다. 원자로는 30% 출력으로 안정화 상태

를 유지하며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고 한 국수력원자력 측은 밝혔다. 한빛 5호기는 점검을 거쳐 17일 오후 4시 30분경 발전이 재개됐다. 원인 조사 결과 외부 송전선로에 낙뢰가 떨어지며 지락전류가 발생해 주 변압기 보호신호가 작동하며 터빈발전기가 정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3·15의거 59주년 ‘장승 데모’ 호남 4·19 혁명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5일 광주시 남구 빔고를 시민문화관에서 ‘제59주년 3·15의거 기념식’을 갖고 시민, 학생, 단체회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5·18민주광장까지 ‘국 민주주의 장승 데모’를 재현하는 시가행진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차태현·김준호 ‘돈내기 골프’...예능 프로 ‘1박2일’ 제작 잠정 중단

차·김, 모든 프로그램 하차

성관계 ‘몰가’ 동영상 찍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과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중인 ‘1박2일’의 차태현과 김준호가 내기 골프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은 배우 차태현과 개그맨 김준호가 불법 원정 골프 내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박2일 출연자 단체방 대화 내용에 대해 이미 확인하고 추가로 분석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차태현은 해당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5만원권 수십장 사진을 올리고 김준호 등과 내기 골프를 쳐서 딴 돈이라고 자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카카오톡 내용은 경찰이 성관계 동영상 촬영과 유포 등의 혐의로 가수 정준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박2일 출연진 단톡방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 제기 직후 차태현과 김준호는 이날 각자 소속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고 ‘해외에서 골프를 친 적은 없다. 국내에서 게임이라 생각하고 했던 것’이라며 ‘내기 골

프로 딴 돈은 게임이 끝난 직후 돌려주거나 돌려받았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제기된 의혹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현재 출연하고 있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내기 골프 의혹으로 차태현은 ‘1박 2일’과 MBC ‘라디오스타’를 하차했으며, 김준호도 KBS ‘개그콘서트’와 tvN ‘서울메이트 2’를 떠나게 됐다. 한편 이번 사태로 KBS 2는 1박2일 프로그램 제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성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해임 이상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성비위가 아닌 폭언·욕설 등 행위가 드러난 교사들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요구를 학교 측에서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사립학교들이 징계를 미루거나 수위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시교육청이 강요할 근거는 없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융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제품

LG ESS 삼성SDI SAMSUNG

ESS · 설계 · 시공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 기준치 5.0 배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협력하기로

- 산업부 장관, 4개 단체장(광주·전북·전남·제주 에너지산업협회)과의 협정서 체결

- 에너지산업 협회와 공동협력 체결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 지자체, '에너지산업 특별조례' 제정 추진

- 사업에 예산지원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규모) 추진 가력함에 공동 노력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

주 소 | 순천시 중앙로 317 2층

전 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